

리더쉽이란?

한국 사회에서는 리더는 직책이나 타이틀이 있어야 하고 윗자리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명성과 명예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가가 되거나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규정을 내린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리더쉽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누지도 않고 심각한 토론을 하지는 않는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듯이 제대로 된 리더쉽이 정립이 되려면 시간과 정력이 들지만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후세, 2세, 3세들을 위한 리더들을 키울 수 있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리더쉽은 물론 타고난 기질은 있지만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나 꾸준한교육이나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 경험과 교육의 장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봉사단체에서는 이러한 장의 극히 작은 부분을 감당하지만 중요한 영향과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는 요즘은 권위적인 지도력을 요구하는 과거의 봉건 시대나 왕정 시대와 같지 않다.

권위적인 지도력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로 하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지도력으로 팀웍과 참여의식 지도력이다. 팀이란 구성되는 그 자체가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팀 멤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팀웍과 참여 의식 리더쉽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모든 사람이 계획하는 것부터 성취와 결과를 얻으며 마치는 순간까지 책임을 지면서 나와 관련된, 나의 활동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꼭 리더 혼자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다른 창조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면서도 그룹 전체가 공동의 관심사로 한 마음이 되어서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사무장 진수연
가족치료사 / 심리치료사

펼치기 때문이다. 이를 진행할 때 단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 갈등을 줄이면서 더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리더들은 자신들의 욕구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과 위치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앞장을 서서 추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지식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쫓아갈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면, 의지, 즉 행동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리더이다.

리더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들의 자아발견, 건강 상태, 가치관, 성격이나 생활 방식 등을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 결정이 아주 중요한 우선 순위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 각자의 가치 체계에 맞는 도덕,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리더는 자신만이 펼칠 수 있는 unique conviction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앞장서는 일은 흔들리지도 흔들려서도 안될, 판단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즉, 오늘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를 결정하면서 산다.

선택이다. 결정의 우선 순위와 선택의 순위, 시간이 다를 뿐이다.

리더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개인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 리더에게, 가족에게, 사회에게, 국가에게, 세계를 향해서 발휘하는 것이고 생활하는 순간 순간 의미도 주고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지도력은 팀웍을 촉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벤트 계획 및 조직을위한 훌륭한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지도력으로 육성한다. 지역 사회 문제와 도전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있다.

건강한 공동체를 건설하고 존엄과 존경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지도자가 성장하고 동시에 사람으로 치료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